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강아지들

토리, 버치, 하니 이야기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농수로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생활하던 토리와 버치

믹스견인 토리와 버치는 2015년 6월 팅커벨 프로젝트에 구조된 자매 강아지들입니다. 발견 당시 경상남도 함안의 농수로에서 떨고 있던 두 아이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모낭층에 걸려 있던 토리와 버치는 꼬리와 엉덩이 일부를 제외하면 털이 몽땅 빠져 있는 상태였고, 얼굴을 비롯해 피부 전체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꼭 붙어 있다가도 사람이

가까이 가면 스스럼없이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강아지라는 것조차 알아보기 힘든 몰골을 하고, 농수로 속에서 물끄러미 카메라를 올려다보던 토리와 버치. SNS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이 팅커벨 프로젝트에 알려지자, 많은 회원들이 이 강아지 자매를 구하자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모낭층을 치료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발 가능성 때문에 입양자도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팅커벨 프로젝트에서는 구조입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토리와 버치를 구조하기로 결정했고, 두 강아지는 곧 서울의 팅커벨 연계동물병원으로 오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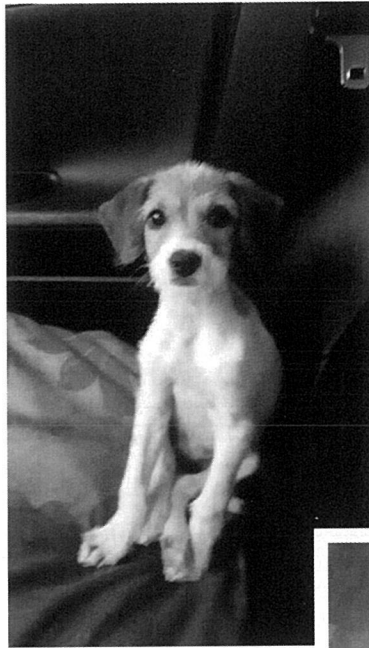
▲사람이 다가가자 반가워하는 토리와 버치

모낭층 치료를 받으며 토리와 버치는 차츰차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둘 다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었지요.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토리와 버치는 파보장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방접종 한 번 받

아보지 못한 채 피부병이 생기자마자 버려졌을 아기 강아지들. 유기된 후 농수로의 쓰레기더미 위에서 생활해야 했던 두 강아지가 건강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의료진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토리와 버치는 파보와 모낭충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긴 치료를 마친 뒤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입양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지요.



▲ 입양센터로 이동 중인 하니

입양센터에 온 토리와 버치는 자기 또래의 친구인 하니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가 하루 종일 함께 장난을 치다 몸을 맞대고 잠드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자매 같았어요. 밝고 명랑한 하니를 보면 아픈 기억 따위는 하나도 없었을 것 같지만, 하니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텅커벨 회원 중 한 분이 어느 날 친목 동호회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시부모님이 키우게 된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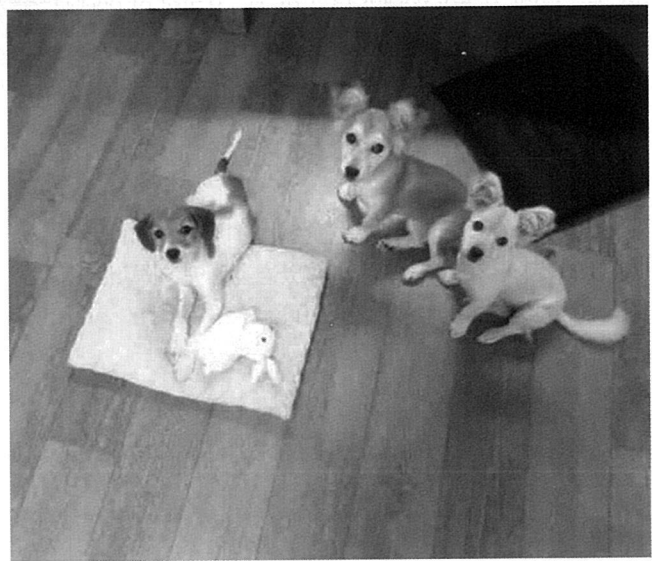
“최근에 우리 시부모님이 길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웠대요. 집 지킬 개가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집에 데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회원 분이 알기로 강아지를 데려왔다는 그 시부모님은 예전부터 개를 길러서 잡아먹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길에서 데려왔다는 어린 강아지도 마당 한 칸에 묶여 지내다가 다음해 여름쯤에는 짧은 생을 다할 것이 분

명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강아지지만, 회원 분은 그 강아지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필요조차 없이, 얼마 후 그 분들이 강아지를 다시 버릴 생각이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마당에 묶여났는데 강아지가 너무 짫대요. 주워온 자리에 다시 갖다놓겠다고 하시던데요.”

회원 분이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작은 아기강아지는 굵은 목줄을 한 채 60센티미터가 될까 말까 한 짧은 쇠사슬에 묶여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 입양센터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는 토리, 버치, 하니

굵은 목줄과 짧은 쇠사슬이 어울리지 않게, 강아지는 한 손에 잡힐 만큼 작았습니다. 그 당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강아지, 그게 바로 하니였지요.

아직 어린 강아지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짧은 시간 겪어야 했던 세상은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어미젖은커녕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겠지요. 그래도 입양센터의 꼬꼬마들은 더없이 밝고 명랑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배워나가고, 입양센터가 넓은 초원이나 되는 것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곤 해요.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았을 존재들. 꼬꼬마 토리와 버치, 하니를 보며 세상의 모든 반려동물들이 축복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

